

이노스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공단이 7월 16일 생산성리더스클럽이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이노스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노스킬 경진대회는 총 6개 부문* 예선에 참가한 45개 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24개의 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들을 경쟁하는 행사이다.

공단은 공사 1건의 계약발주 당 50여일 걸렸던 심사 업무를 단 1주일로 단축하고, 신청 회사당 4000쪽에 달하던 심사서류를 30쪽으로 축소하는 '계약심사' 개선으로 계약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투명성 제고를 높이 평가받아 'Smart Powe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반설계 최적화'로 157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과잉설계방지를 위한 철도 전기시계 기준정립'으로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Soft Power 부문', 'Hard Power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6개 부문 ▲Hard Power ▲Soft Power ▲Smart Power ▲Quality Power ▲Human Power ▲Technics Power

김광재 이사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지식혁신 사례 3건 모두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속성장 하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건설사업 현지지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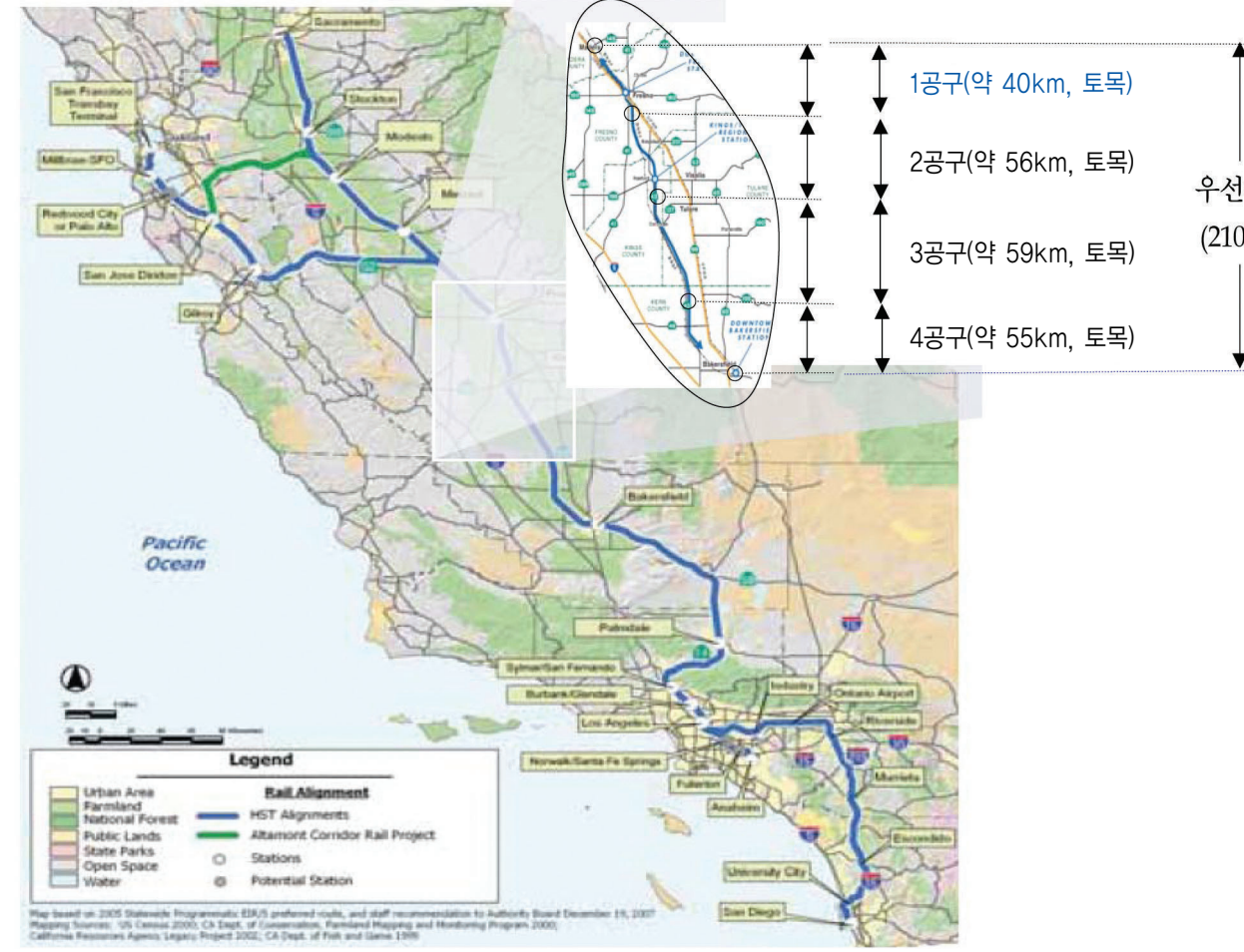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우선사업구간(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 210km) 제1공구(40km)의 설계·시공 우선협상대상자인 튜터 페리니(Tutor Perini) 컨소시엄과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자문인력 2명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건설 사업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연방정부 55%, 주정부 45%)하여 추진되며 샌프란시스코~애너하임(837km) 구간은 2028년, 우선사업구간(사업규모 52억달러)인 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부는 이번 우선사업구간 참여를 계기로 2~4공구(토목), 5공구(궤도) 등 설계·시공자문 관련 추가사업 수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2028년까지 70조원 규모의 본 사업(토목시공, 차량·시스템구매 통합발주)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본부는 미국 고속철도시장에 첫 진출한 만큼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지사 설립 등 단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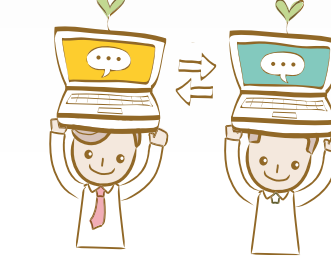
노사관계 개선 위한 사내 토론방 운영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전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노사관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7월 11일부터 사내 전산망에 '노사상생토론폰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업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각종 정부평가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이 불합리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노조의 반대와 일부 직원의 인식 부족으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노무복지처는 '노사상생토론폰방'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함으로써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과 노사는 지난 2월 24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5월 22일 본 교섭을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뉴스 ('13.7.13~'13.7.19)

- "KTX 광주역 진입 방식 내년 하반기 결정" (광주일보05)
- 프랑스 열차, 플랫폼과 충돌... 6명 숨져 (조선일보18)
- 부처 칸막이 제거 공염불로 끝나나 곳곳 불협화음 (중앙일보01)
- 철도시설공 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건설 참여 (파이낸셜25)
- 국토부, 2577개 안전 매뉴얼 상시 점검한다 (서울신문17)
- 대대적 경영혁신 드라이브 '상생 시동' (대전일보11)
- 철도 구조개혁 없이 공기업 구조개혁 없다 (해럴드25)
- 공항철도에도 부품성적서 위조 (매일경제31)
- 지방 SOC 공약 3개중 1개 경제성 이미 '낙제' 평가 (한국경제03)
- 교량·터널 등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 미시행 과태료 (파이낸셜04)
- 건설 임금 체불 땀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 (서울신문06)
- 수원 친환경 노면전차 건설 속도 올린다 (서울신문12)
- 신용등급 강등·열차 탈선... 우울했던 불행명기념일 (조선일보18)
- 여·야 동서고속철 수정안 '대립각' (강원도민03)
- 道 남부내륙철도 선로 단선 추진 (국제신문11)
- 찜물경영으로 부채 8000억 감축 (서울신문48)
- 신도시들 '거미줄' 연결... 136km 도시철도 깔린다 (동아일보15)
- 경기도 핵심 추진과제 'GTX' 정부 우선추진 공약 선정된듯 (경인일보01)
- 70년간 방치돼 왔던 삼진강 폐교각·터널에 이달 말 자정거기 개통 (조선일보14)
-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백지화 될 듯 (세계일보12)
- 의정부경전철 내년 초 파산설 '로망로망' (경기일보11)
- 중동 철도 수주전 후끈 (서울경제27)
- 철도시설공단, 4124억 사업비 절감 (파이낸셜25)
- 철도공단 충청본부, 샘골지역아동센터 그늘막 설치 봉사 (충청투데이22)
- GTX 상남·용인권 역사 확정 (경기일보01)
- 2년전 약속 뒤집는 철도공단 (경인일보23)
- 교통세-탄소세 전환... 유류세 체계 확 바꾼다 (서울경제01)
- 興, 25일 경기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경기일보04)
-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발전정책 주민 중심 상향식으로 바꾸겠다 (동아일보06)
- 공공기관운영위 회기적 개편해라 (파이낸셜23)
- 中~유럽 1만214km '철의 실크로드' 개통 (동아일보22)
- 버터야 산다...건설 CEO 영업팀 대신 삼림꾼으로 (중앙일보B01)
- 서울~뉴욕 2시간... 초음속 진공 열차 (중앙일보18)
- '복지'에 밀려나는 SOC 투자 (중앙일보10)
- 민자 SOC 유인책 필요하다 (서울경제39)

부적정공중 판단기준 '설계금액→예정금액'으로 변경

- PQ 및 최저가심사기준 개정... 7월 이후부터 적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업체의 불공정한 입찰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적정공중 판정기준을 설계금액 대신 공중 예정금액으로 변경, ▲평균입찰액 산정 시 입찰액순위 상위 30%와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까지 제외,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우수업체에 가점(2점) 부여, ▲낙색기입 및 낙색건축물 인증 보유업체에게 가점(2점) 부여 등이다.

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감점(-3점) 부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제재율 완화(-3점→ -7점)하는 등 신인도 감점 한도를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등록기간 3년 미만 중소기업의 중 우수기업의 철도건설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를 면제(10억원 미만 공사)하거나 만점기준을 완화(10억~50억원 공사, 설계금액 3배→설계금액 1/2배)했다.

특히, 부적정공중 판정기준을 설계금액에 예가산출물을 곱해 산출한 공중예정금액으로 변경하고, 공중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금액순위 제외범위를 하위 30%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중기준금액 예측을 어렵게 하여 입찰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계약처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손해보험 입찰참가자격 완화

- 중소기업사 참여기회 확대 및 경쟁촉진으로 예산절감 효과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대안·일괄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 계약의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사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와 보험사의 경쟁촉진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던 기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단독입찰을 허용함으로써, 당초 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7개사까지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의 폭이 확대됐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참가자격 중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원수보험료 실적 요건을 제외했으며,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모든 손해보험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지급여력비율은 우량하나 매출실적(원수보험료)이 다소 부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사도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계약처는 이번 공사손해보험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참여 보험사의 경쟁 촉진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내식당 운영자 중소기업 선정 추진

- 대기업 배제 및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8월 23일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되는 본사 구내식당 운영자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무복지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급식상 기준 1일 평균 3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실적이 있는 위탁급식 영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고, 운영 능력·식당 운영계획·설명회 및 현장 실사·서비스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제안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운영자를 선정한다.

종전에는 연간 집단급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 단일급식상 기준 1일 평균 6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실적이 있는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한편 본사 구내식당은 면적 1108㎡로 3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이며 급식 단가는 3000원이고 조식·중식·석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5000원 이상의 예약식당도 별도 운영할 수 있다.

노무복지처는 운영사업자 선정에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7월 16일 나라장터(G2B) 및 공단 홈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충청본부, 대전 샘골지역아동센터 찾아 봉사활동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 KR봉사단은 18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샘골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이 약 20명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건물 1층과 옥상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샘골지역아동센터 수녀님과 어린이들은 "여름에 햇빛 때문에 집 안에만 있었는데 그늘막이 설치돼 야외에서 즐겁게 놀 수 있어 기쁘다"며 KR봉사단에게 해맑은 웃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본부 직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아동센터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기쁘다"며 "다음에는 어린이들이 편하고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에 책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조사

-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황도창 차장 병부상 - 발인 : 2013년 7월 16일
-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임기식 과장 조모상 - 발인 : 2013년 7월 18일
-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설석근 과장 모향상 - 발인 : 2013년 7월 16일